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나경¹ · 안나원²

^{1,2}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the image of a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focused on subject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Na Kyoung, Lee¹ · Nawon, An²

^{1,2}*Cheongam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5권 제2호 2021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June. 2021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나경¹ · 안나원²

^{1,2}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the image of a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focused on subject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Na Kyoung, Lee¹ · Nawon, An²

^{1,2}Cheongam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the image of a nurse and its impact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during the COVID-19 outbreak. **Methods :** Between September 30 to October 15, 2020, 128 nursing students in their third and fourth grade of K and C colleges completed a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Results :** The mean score on the total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3.52 ± 0.43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fourth grade students than in the third grade students ($p = .014$) and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the image of a nurse ($p < .001$). The variables explained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by 29.3%. **Conclusion :**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interventions that strengthen positive images of nurses and increase self-esteem.

Key words : COVID-19,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Self concep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팬데믹이 선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국내 확산[1]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임상실습 기관에서는 환자와 학생의 안전을 우선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일부 중단하거나 전면 취소하였다[2].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통합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이지만[3-5], 질병의 전파력이 강한 COVID-19로 인하여 발생한 임상실습 중단 및 취소 상황은 간호교육의 실습방식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2020년 1학기 대학교육은 COVID-19의 확산에 따라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개강이 진행되었고, 현장에서의 대면실습이 불가능해진 간호대학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도 온라인이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2]. COVID-19 이전에도 한정된 실습교육 인프라에 대한 대체와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의 플랫폼 전체를 영상학습, 자기주도학습 등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2,4],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은 비판적 사고력과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며[4], 임상실습은 이론학습내용을 임상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응용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5].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다양한 술기를 관찰, 실습할 수 있고,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감염관리 등의 병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6].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간호사 취업 후 임상현장에서의 부적응과 실무역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학제 과정에서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6,7].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는 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실습교육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5].

이와 더불어 변화된 환경 자극은 인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스스로 인식하는 외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접 상황에 대하여 해석,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인격과 직업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8,9]. 이러한 자아에 대한 평가 능력이 자아존중감이며, 이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바람직한 존재라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8-10]. 특히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과 관계가 높는데 간호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직업 특성으로 인해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9]. 만약 이론적 지식과 임상 기술의 습득 및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 돌봄에 이바지해야 하는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면,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9]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 감소에 영향을 주는[11]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을 경험하는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이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7], 이로 인해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한다[9].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간호사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12], 낮은 실습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임상실습을 잘 수행할 수 있고[7,13], 임상실습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또한 COVID-19의 방역조치로 실시한 비대면 실습의 경우 사회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대인관계 축소로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12],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가 스스로 전문가다운 간호를 창출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간호 전문직 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16]. 반면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더불어 전문직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므로[15,17],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는[18] 임상실습 만족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

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을 의미하며[19], 간호사의 친절성, 신속성, 청결, 희생과 봉사 정신, 그리고 간호사와의 직접 경험 등의 주관적 요인과 복장, 의사 보조역할, 3교대 근무 등의 제도적 요인, TV 등의 매체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16]. 특히 간호대학생은 주로 대중매체나 간호사와의 접촉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간호사에 대한 존경, 자부심 및 기대감 등 긍정적 내용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진 등 부정적인 내용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12,15,20],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환경과 같은 외적인 부분과 임상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저하와 같은 내적 요소, 그리고 현장 간호사의 무관심, 의사소통 능력 부족과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대인관계 요소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14,21,22]. COVID-19로 인해 경험하게 된 온라인 실습 등의 환경적 변화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 검색이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3]. 반면 교수자나 학습자와의 상호 교류가 줄어들고,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이 어려워지며,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기술과 환경 준비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거론되고 있다[7,23]. 이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현장에서도 COVID-19로 인한 간호사의 업무확장과 감염에 대한 노출 우려, 감염관리 강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20] 이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변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 학과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 능력,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등 다양한 변수들과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4,17,22,24].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는 각각 임상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가 있지만[14,17],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세 가지 관계를 동시에 파악한 연구는 미미하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COVID-19 이전에 시행되어, 임상실습 교육의 변화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재정립해보고 변화된 임상실습 교육환경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변화된 실습 환경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25],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9]과 매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정보나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간호사 이미지[15,20]와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임상실습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보완과 높아진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Y, S시 소재의 K, C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 134명이다. G-Power 3.1.9 프로그램으로 회귀분석을 검증하기 위해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3개의 변수(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 수는 119명이었고, 본 연구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불충분한 응답을 한 6명을 제외한 128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30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였다. 본 연구자가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개발하고 Jeon[8]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 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부정적 문항(3, 5, 8, 9, 10번)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Yang[16]이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Lee[2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6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문항(26, 27, 31번)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128)

	Characteristics	n(%)
Age (years)	21~22	73(57.0)
	23~24	51(39.9)
	Older than 25	4(3.1)
Gender	Female	117(91.4)
	Male	11(8.6)
Grade	3rd	78(60.9)
	4th	50(39.1)
Religion	No	84(65.6)
	Yes	44(34.4)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34(26.6)
	Living apart from family	34(26.6)
	Dormitory	60(46.8)
Number of siblings	More than one sibling	115(89.8)
	Only child	13(10.2)
School records	High (A-A+ level)	37(28.9)
	Middle (B-B+ level)	83(64.8)
	Low (below C level)	8(6.3)
Motivation for admission	Suitable high school grades	20(15.6)
	Appropriate aptitude	51(39.8)
	Recommendations of others	27(21.1)
	To have a volunteer job	6(4.7)
	Inspired by the nurse around others	11(8.6)
	others	13(10.2)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 31문항 전체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의 신뢰도는 .90으로 측정되었으나, 요인별 신뢰도는 전통적 이미지 요인 .92, 사회적 이미지 요인 .44, 전문적 이미지 요인 .79,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요인은 .58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이미지 요인에서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간호를 수행한다'(18번) 문항, 개인적 이미지 요인에서 '간호사는 터프하다'(30번) 문항을 각각 제외하여 29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항 제거 이후 사회적 이미지 요인 Cronbach's α 는 .79, 개인적 이미지 요인은 .65이고, 수정된 간호사 이미지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Cho와 Kang[26]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27]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28]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원 도구는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9번 문항 '실습 중에 할 일이 없음을 느낀다'는 실제의 임상실습 상태와 맞지 않아 문항을 삭제하고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Cronbach's α 는 각각 실습교과 .74, 실습내용 .61, 실습지도 .80, 실습환경 .80, 실습시간 .89, 실습평가 .70이었고,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 교육 이수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 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연구대상자의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조사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지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으나 자료 수집 후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 시 컴퓨터상의 정보를 암호화한 후 잠금 처리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는 학술을 위한 출판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점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조사 이후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비교를 위해 t-test, ANOVA,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학년을 통제변수로 한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2세(57.0%)가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학생 117명(91.4%), 남학생 11명(8.6%)이었다. 학년은 3학년 78명(60.9%), 4학년 50명(39.1%)으로 나타났다.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은 '중'이 83명(6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학 동기는 '적성 취미가 맞아서'가 51명(39.8%)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타인의 권유'가 27명(21.1%)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 = 128)

Categories	Items	M±SD	Min~Max	Ranges
Self-esteem	10	3.12±0.44	1.8~4.0	1~4
Image of nurse	29	3.35±0.38	2.54~4.0	
Traditional image	12	3.52±0.43	2.2~4.0	
Social image	6	3.34±0.49	2.2~4.0	1~4
Professional image	6	3.60±0.37	2.8~4.0	
Personal image	5	2.95±0.53	1.8~4.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0	3.52±0.43	2.3~4.5	
Subject satisfaction	3	3.92±0.70	1.3~5.0	
Content satisfaction	5	3.67±0.55	2.6~5.0	
Instruction satisfaction	9	3.32±0.57	1.0~4.6	1~5
Environment satisfaction	7	3.64±0.58	1.6~5.0	
Time satisfaction	3	3.27±0.90	1.0~5.0	
Evaluation satisfaction	3	3.27±0.76	1.0~5.0	

Table 3. Self-esteem,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28)

Characteristics		Self-esteem			Image of Nurs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s)	21~22 ^a	2.30±0.46	8.01	.001	3.29±0.37	0.20	.003	3.41±0.43	5.28	.006
	23~24 ^b	3.30±0.37		a<b	3.47±0.36		a<b,	3.66±0.40		a<b
	Older than 25 ^c	2.98±0.13			2.94±0.13		c<b	3.56±0.39		
Gender	Female	3.11±0.45	-0.09	.928	3.36±0.38	0.80	.427	3.51±0.43	-0.75	.454
	Male	3.13±0.37			3.27±0.35			3.61±0.46		
Grade	3rd	3.00±0.44	-3.80	<.001	3.28±0.37	-2.65	.009	3.44±0.44	-2.50	.014
	4th	3.29±0.38			3.46±0.36			3.63±0.40		
Religion	No	3.09±0.46	-1.23	.220	3.35±0.35	-0.29	.771	3.48±0.45	-1.16	.248
	Yes	3.20±0.43			3.37±0.44			3.58±0.39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3.16±0.42	0.30	.744	3.39±0.31	0.44	.643	3.44±0.44	1.62	.202
	Living apart from family	3.12±0.51			3.37±0.45			3.62±0.47		
	Dormitory	3.09±0.42			3.32±0.36			3.50±0.40		
Number of siblings	More than one sibling	3.11±0.44	0.59	.555	3.32±0.36	2.77	.006	3.50±0.44	1.50	.137
	Only child	3.18±0.46			3.62±0.41			3.69±0.39		
School records	High (A-A+ level) ^a	3.18±0.44	3.20	.044	3.38±0.34	1.03	.361	3.59±0.35	2.89	.059
	Middle (B-B+ level) ^b	3.12±0.43		c<a	3.36±0.39			3.52±0.45		
	Low (below C level) ^c	2.75±0.47			3.17±0.38			3.18±0.54		
Motivation for admission	Suitable high school grades	3.05±0.42	0.57	.725	3.34±0.36	1.33	.257	3.54±0.49	0.30	.915
	Appropriate aptitude	3.14±0.41			3.29±0.36			3.49±0.42		
	Recommendations of others	3.08±0.52			3.34±0.40			3.50±0.44		
	To have a volunteer job	2.97±0.23			3.52±0.18			3.43±0.34		
	Inspired by the nurse around others	3.15±0.61			3.40±0.37			3.60±0.54		
		3.26±0.33			3.54±0.43			3.60±0.40		

* a, b, c : scheffe test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12 (± 0.44)점이었으며, 간호사 이미지는 4점 만점에 3.35(± 0.38)점이었다.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전문적 이미지가 3.60(± 0.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이미지가 2.95(± 0.53)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2(± 0.43)점이고, 교과내용 만족도가 3.92(± 0.70)점으로 가장 높고, 실습시간 3.27(± 0.90)점, 실습 평가 3.27(± 0.76)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연령, 학년,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3~24세의 경우 21~22세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F=8.01, p=.001$), 3학년보다 4학년이($t=-3.80, p<.001$), 학교 성적이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F=3.20, p=.0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대상자의 연령, 학년 그리고 형제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3~2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고($F=0.20, p=.003$), 학년별 차이는 3학년보다 4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65, p=.009$). 형제 유무는 간호사 이미지에서 유일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형제가 없는 외동의 경우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형제가 1명 이상인 경우보다 높았다($t=2.77, p=.006$).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23~24세의 경우 21~22세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5.28, p=.006$), 학년 부분에서 3학년보다 4학년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50, p=.014$).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과 학년은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 모두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형제 유무는 간호사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아존중감($r=.47, p<.001$), 간호사 이미지($r=.5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r=.56,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더미변수(가변수)로 처리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모두 .80미만으로 나타나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가 각각 0.650에서 0.894로 VIF(Variation index factor)는 1.119에서 1.539로 기준값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증하기 위한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682로 2에 근접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영향력 분석을 위한 Cook's 거리 통계량은 128개 중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 Model 1은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4학년의 경우 3학년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beta =-.22, p=.014$), 설명력은 4.0%로 낮았다($F=6.26, p=.014$). Model 2는 독립변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를 추가 투입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위계를 투입한 Model 2의 설명력은 29.3%로 Model 1과 비교하여 25.3%($p<.001$)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Model 2에서는

자아존중감($\beta=0.26, p=.005$)과 간호사 이미지($\beta=0.35, p<.001$)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Model 1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던 4학년은 영향요인에서 제외되었다($\beta=0.05, p=.494$). 즉, 회귀분석 결과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학년 변수의 영향 없이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최근 COVID-19의 확산세로 인해 임상실습 교육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임상실습 환경변화에 대한 개선과 대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5점 기준 환산점수가 3.9점으로, Choi와 Ha[12]의 3.58점과 Gil[14]의 3.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환경에 적응하며 수행능력이 향상함을 보고한 Lee[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임상실습 환경 중 대인관계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아존중감의 특징을 고려할 때[9], 임상실습 전 단계에서 대인관계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1~2학년 시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 = 128)

Variables	Self-esteem $r(p)$	Nurse image $r(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p)$
Self-esteem	1		
Image of nurse	.56(<.001)	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47(<.001)	.50(<.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 = 128)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p)$	B	SE	β	$t(p)$
Constant	3.63	2.03		60.39(<.001)	1.41	0.33		4.27(<.001)
Grade	-0.19	0.08	-0.22	-2.50(.014)	-0.05	0.07	-0.05	-0.69(.494)
Self-esteem					0.26	0.09	0.26	2.84(.005)
Image of nurse					0.40	0.10	0.35	3.83(<.001)
F(p)			6.26(.014)				18.54(<.001)	
ΔF			6.26(.014)				23.56(<.001)	
R ²			.047				.310	
ΔR^2			.047				.262	
Adj. R ²			.040				.293	

* Reference group : 4th grade

기에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개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자아존중감 증진을 도모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전문적 이미지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 이미지 3.52점, 사회적 이미지 3.34점, 개인적 이미지 2.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과 Jo[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hoi와 Ha[12], Yang[16]의 연구에서도 전문적, 전통적 이미지에 비해 개인적, 사회적 이미지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간호사 이미지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간호사 개개인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기본 예절과 같은 개인적 직업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16]. 또한 이는 곧 임상 현장에 투입될 3, 4학년 학생들에게서 나온 의견임을 반영하여, 간호교육에서도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52점으로 600시간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Jo[15]의 연구 결과나 본 연구 대상과 같은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과 Kim[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Gil[14]의 연구는 연구 대상이 3, 4학년으로 같았으나 3.23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고, 2학기 이상 실습을 종료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Oh[24]의 연구 결과도 3.13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인관계 능력, 대처 방법, 스트레스 경험이나 이론과 실습환경의 차이 등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5,14,21,22],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연구 시점과 실습환경에 따른 차이를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임상실습 중단 및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황과 점수가 유사하거나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이 병행됨에 따라 오히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현장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대면 실습상황의 갈등 요소인 대인관계 문제나 스트레스 경험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임상실습 교육 설계 시, 부정적 요소인 대인관계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강화하여 실습교육을 설계한다면,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연령, 학년,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1~22세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Choi와 Ha[12]의 연구에서는 나이와 학년 모두 차이가 없었고, Yang[7]의 연구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신 성적이 '상'인 경우 '하'인 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나온 결과는 학점이 4.0 이상일 때 3.4 이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나온 Yang[7]의 연구 결과와 3.0 이상의 학점에서 그 이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Gil[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스스로 내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9,10]라는 점에서 학생으로서 받게 되는 객관적 평가인 성적 자체가 본인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간호사 이미지는 25세 이상이 2.9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23~24세가 3.47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28]의 연구에서 30세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학년에서도 4학년의 경우 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었는데 이 또한 Choi와 Ha[12]의 연구에서 1학년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2, 3학년에 비해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Kang과 Jeong[1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더 낮았는데, 임상실습 경험은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학교에서의 교육내용이나 현장 간호사에 대한 경험, 이론과 실무의 차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17], 임상실습 전 학생들에게 실습기관 및 간호조직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심어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실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제 유무는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 중 유일하게 간호사 이미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형제가 없는 경우에서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추가 분석결과 형제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자체가 13명으로 적고, 4학년의 비율이 8명(61.5%)으로 전체 대상자에서의 비율(39.1%)과 달라 형제 유무보다는 학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살펴보면, 4학년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가 3학년의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보다 높았는데 이는 Gil[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의 경우에는 COVID-19 발생 전인 3학년 과정에서 1년의 병원에서의 임상실습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임상실습 적응이 3학년보다 잘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Seo와 Eom[23]의 연구 결과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임상실습을 받은 군이 전통적인 임상실습을 받은 대조군보다 실습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처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과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것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후 임상실습 프로그램 구성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습의 장단점을 보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하위영역 요인 중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실습시간(3.27점)이나 실습평가(3.27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Lim과 Jo[15]의 연구에서 실습교과에 대한 점수(3.94점)가 가장 높고, 실습시간과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3.38점으로 낮았던 것

과 유사하다.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는 임상실무 현장에서만 임상실습이 진행되던 상황에 비해 점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상실습 시간이나 실습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과제 작성 시간이 증가하고, 임상환경과 달리 변화요인이 적고, 영상학습 등 관찰식 학습이 주로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실습시간이라도 흥미가 저하되면서 답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상실습 지도 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직접 대면 지도가 어려워지고, 임상실습 배치에 따라 실습 운영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 진행 시 지도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시 다양한 매체와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hoi와 Ha[12]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간호사 이미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Gil[14]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Kwon과 Kim[17], Lee 등[28], Kim과 Cha[30]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각 선행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도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는 서로 긍정적 관계가 있으므로,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높인다면[13] 임상실습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모두 임상실습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미 2개 학기 동안 실습기관에서 대면으로 임상실습을 경

험한 4학년과 COVID-19 시기에 첫 임상실습을 시작한 3학년과의 차이를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년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두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이는 학년 요인보다는 간호사 이미지나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중 자아존중감은 Gil[1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p < .001$),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beta = 0.48, p < .001$) Kwon과 Kim[17]의 연구와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 중 전통적 이미지 요인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beta = 0.31, p < .001$) Lee 등[2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Kim과 Cha[30]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었던 4학년의 점수가 3학년보다 높았던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이러한 차이가 경험에 따른 긍정의 효과인지,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만족감의 증대인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습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은 물론 임상실습 기관의 교육 담당자나 협력 직업군과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증진에 대한 교육도[11]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즉,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실습환경 교육의 변화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비추어지는 낮은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는 임상실습 만족도 증진을 위해 먼

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학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간호조직 내에서 우선적으로 간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내외적 이미지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최근 소셜 미디어 활용 증가 등의 매체 변화를 고려할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18] 대중매체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간호사의 이미지 등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및 간호사 이미지 쇄신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개의 대학에 소속된 3, 4학년 간호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실습 경험 차이를 고려하여 학년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요인 파악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고,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 인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COVID-19라는 위기를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간호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COVID-19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

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양한 임상실습 환경을 고려한 임상실습 만족도 파악을 위해 다양한 지역과 환경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이수하여 대면과 비대면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임상실습과 온라인 실습 각각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이외의 다양한 관련 요인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bout COVID-19 [Internet]. Cheongju: [updated 2021 March 2; cited 2021 April 15]. Available from: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2. Kim WG, Park JM, Song C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online clinical practicum program on emergency nursing car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1;15(1):131-142.
3. Eyikara E, Baykara Z.G. The importance of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World Journal on Educational Technology: Current Issues*. 2017; 9(1):2-7.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Operating guidelines for the nursing practical education support project [Internet]. Seoul: [updated 2020 May 7; cited 2021 April 15]. Available from: <http://old.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200507163749.pdf>
5. Jeon MK, Kim MS.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40-48.
6. Kwon SH, Kim SH, Jung SY, Mo MH, Chun YM, Hong SY, et al. Core nursing skill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clinical teaching for new graduate nurses as recognized by clinical nurse educators.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1;32(2):309-324.
<https://doi.org/10.7465/jkdi.2021.32.2.309>
7. Yang SY.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9):286-29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9.286>
8.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107-130.
9. Dimitriadou-Panteka A, Konstantinos K, Pizirtzidou E. The concept of self-esteem in nursing education and its impact on profession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14;7(1):6-11.
10.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1979.
11. Lee MO.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learning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9;24(4):145-151.
<https://doi.org/10.9708/jksoci.2019.24.04.145>
12. Choi J,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9;15(1):54-63.
13. Lee ES.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belongingness and self-esteem on self-directed learning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7. p 1-74.
14. Gil, E.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2018;13(1):43-51.

- <http://doi.org/10.15715/kjhcom.2018.13.1.43>
15. Lim KM, Jo EJ.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4):556-566.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56>
 16. Yang IS.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8;4(2):289-306.
 17. Kwon YE, Kim SY.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1):80-8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80>
 18. Kang MR, Jeong KS. A comparison of the nurses image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342-349.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42>
 19. Kalisch PA, Kalisch BJ.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1987. p. 1-259.
 20. Yoon YM, Kim SK, Kim HK, Kim EJ, Jeong Y. Comparison of topics related to nurse on the internet portals and social media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er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20;27(3):255-267.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55>
 21. Cho HH, Kang JM.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7;23(2):199-206.
<https://doi.org/10.4094/chnr.2017.23.2.199>
 22. Jung KT, Ha YJ, Oh NY, Kim SY, Kwon MJ, Lee NH, et al.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1);23-36
 23. Seo YH, Eom MR. The effects of clinical nursing practicum education using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focused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of special uni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15):539-556.
 24. Oh HO.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7;1(2);31-43.
 25. Lee YR. Nurses' image perceived by certified nursing assistants [master's thesis].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8. p 1-46.
 26. Cho KJ, Kang HS.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1984;14(2):63-74.
 27. Lee S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7(2):333-348.
 28.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29. Kwak HW, Lee JE.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 17(2):147-1.
<https://doi.org/10.5762/KAIS.2016.17.2.147>
 30. Kim MO, Cha J.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fter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im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9):247-256.
<https://doi.org/10.14400/JDC.2018.16.9.247>